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이 22일 오전 축구협회에서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카타르전 대표팀 명단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근호·이청용 '위기의 슈틸리케호' 구할까

6월 14일 러 월드컵 최종예선 8차전 카타르 원정 대표 포함  
 'K리그 돌풍' 제주 이창민·황일수 첫 발탁  
 손흥민·기성용 포함...구자철·이정협은 제외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사활이 걸린 '카타르 원정'을 앞둔 울리 슈틸리케 축구 대표팀 감독이 '베테랑' 이근호(강원)와 이청용(크리스탈 팰리스)을 재발탁했다. 또 K리그 클래식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제주 유나이티드의 이창민과 황일수를 처음 발탁했다.

전(6월 8일)을 치르고 나서 6월 10일 '결전의 땅' 카타르 도하로 이동할 예정이다. 한국은 최종예선 A조에서 이란(승점 17)에 이어 승점 13으로 조 2위를 달리고 있다. 3위 우즈베키스탄(승점 12)에 승점 1차로 쫓기고 있어서 이번 카타르 원정 승리가 핵심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카타르전 필승을 위해 '깜짝 카드'로 베테랑 공격수 이근호와 최근 컨디션을 회복한 이청용에게 태극마크를 다시 부여했다. 여기에 중원 자원으로 공격력이 뛰어난 이명주(알 아인)를 오랜만에 불러들였다. 이명주는 2015년 1월 아시안컵 이후 2년 4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다. 수비진에서도 왼쪽 풀백 자원인 박주호(도르트문트)에게 다시 기회를 줬다. 또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해 지난 주말 득점포를 가동한 이재성(전북)도 복귀했다. 더불어 올해 K리그 클래식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제주의 핵심 미드필더 라인인 이창민과 황일수에게도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게 했다.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8차전 카타르전 출전 명단**  
 6월 14일 오전 4시(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b>FW</b>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황희찬(질츠부르크), 이근호(강원)
<b>MF</b> 기성용(스완지시티), 이명주(알 아인), 한국영(알 가라파), 황일수, 이창민(이상 제주), 이재성(전북), 남태희(레키아), 이청용(크리스탈 팰리스), 손흥민(도르트)
<b>DF</b> 장현수(광저우), 홍정호(장쑤 쑤닝), 박태환(서울), 김민혁(시간 도스), 김창수(울산), 최철순, 김진수(이상 전북), 박주호(도르트)
<b>GK</b> 권순태(전북), 김승규(벵골 코베), 김진태(세레소 오사카), 조원우(대구)

여기에 이번 시즌 카타르 스타스리그 MVP에 뽑힌 '중동 매시' 남태희(레키아)도 이름을 올린 가운데 한국인 유럽리그 역대 한 시즌 최다골(21골) 기록을 세운 손흥민(도르트)을 필두로 독일 분데스리가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이번 시즌 전 경기 출전에 성공한 지동원과 '캡틴' 기성용(스완지시티)도 무난히 뽑혔다.

다만 슈틸리케 감독은 최근 부상에서 회복한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과 오른쪽 발목 인대를 다친 '황태자' 이정협(부산)을 비롯해 '장신 공격수' 김신욱(전북)도 명단에서 뺐다. 슈틸리케 감독은 구자철의 대안으로 남태희에게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주기로 했고, 원톱 스트라이커 이정협 대신 K리그 클래식에서 3골 2도움으로 꾸준한 활약을 펼치는 이근호를 선택했다. 여기에 김신욱 대신 '젊은피' 황희찬(질츠부르크)을 원톱 라인에 추가해 '원톱 라인'을 완성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위기의 상황에서 대표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선수들과 K리그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들을 발탁했다"라며 "이근호, 지동원, 손흥민은 모두 멀티플레이어 가능한 선수들이다. 훈련하면서 어떤 공격조합이 최적일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청용과 박주호가 소속팀에서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최근 대표팀 경기에서 일부 선수들이 중압감과 부담감 때문에 제대로 플레이를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라며 "이청용과 박주호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팀을 하나로 뭉쳐 주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역사 '손' 대고 시즌 마감

유럽 무대 2차 첫 리그 20골 돌파 시즌 두 번 EPL 이달의 선수상 정규리그 20개 공격포인트 잉글랜드 2시즌만에 29골

'유럽 무대 아시아 선수로 한 시즌 첫 20골 돌파, 한 시즌 두 번 EPL 이달의 선수상 수상, 정규리그 20개 공격포인트,' '손사인' 손흥민(도르트)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진출 두 시즌 만에 한국 축구사를 새로 쓰며 2016-2017 시즌을 마감했다. 손흥민은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SV에서 본격적으로 유럽 빅리그에 이름을 올린 이후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EPL 진출 두 시즌 만에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이라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며 각종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 시즌 총 21골(리그 14골, FA컵 6골, 유럽 챔피언스리그 1골)을 터뜨렸다. 아시아 출신 선수가 유럽 빅리그에서 한 시즌 20골 이상을 기록한 것은 손흥민이 처음이다. 차범근 전 감독이 1985-1986시즌 독일 무대에 세운 시즌 19골을 31년 만에 갈아치웠다. 박지성(은퇴)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2010-2011시즌 기록한 시즌 8골(정규리그 5골)과 기성용(스완지 시티)이 2014-2015시즌 작성한 시즌 8골(정규리그 8골) 기록도 가볍게 뛰어넘었다. EPL 진출 첫해인 2015-2016시즌 기록한 8골을 합쳐서는 잉글랜드 진출 두 시즌

만에 한국인 통산 최다골(27골) 기록도 29골로 새로 작성했다. 박지성이 8시즌 만에 쌓아올린 27골을 깨는 데는 단 두 시즌만 필요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활약은 EPL 데뷔 첫 시즌을 크게 뛰어넘는다. 정규리그에서는 14골을 터뜨렸다. 지난 시즌 4골보다 10골을 더 넣었다. 도움도 6개를 기록하며 이번 시즌 리그에서 20개 공격포인트를 쌓았다. 지난 시즌 4골, 1도움의 4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에서도 6골을 기록, 1년 전 1골을 크게 웃돈다. 여기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

스리그에서도 1골을 작성했다. 손흥민이 기록한 리그 14골은 EPL 전체 득점 랭킹에서도 13위에 해당한다.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득점 기회를 동료들에게 넘기는 바람에 10위 이내에 들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울 뿐이다. 손흥민은 또 한 시즌에 한 번도 받기 어려웠던 EPL 이달의 선수상을 두 번이나 받았다. 손흥민의 나이는 아직 25살에 불과하다. 차범근 전 감독이 19골을 넣었을 때가 33살이었다. 그가 다음 시즌에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벌써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 전인지 또...킹스밀 챔피언십 준우승

올해 준우승만 3차례

전인지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킹스밀 챔피언십(총상금 130만 달러)에서 준우승했다. 전인지는 22일(한국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의 킹스밀 리조트 리버코스(파71·6천43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기록해 4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15언더파 269타의 성적을 낸 전인지는 20언더파 264타로 우승한 렉시 톰프슨(미국)에 5타 뒤진 단독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전인지는 3월 파운더스컵, 4월 롯데 챔피언십에 이어 올해 준우승만 세 번 했다. 최근 우승은 지난해 9월 에비앙 챔피언십이다. 3라운드까지 3타 차 단독 선두였던 톰프슨이 이날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잡

아내의 깔끔한 플레이를 펼치는 바람에 우승 경쟁은 비교적 심겁게 끝났다. 전인지가 7번 홀(파5)까지 버디 3개를 잡아내며 2타 차까지 따라붙었으나 톰프슨이 9번 홀(파4) 버디로 3타 차로 달아난 이후로는 줄곧 3타 이상의 격차가 유지됐다. 이번 대회에서 세계 랭킹 1위 경쟁을 벌인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유소연, 에리아 쭈타누간(태국)은 중상위권 성적을 냈다. 리디아 고와 유소연이 7언더파 277타로 나란히 공동 10위, 쭈타누간은 4언더파 280타로 공동 19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세계 랭킹은 변함 없이 리디아 고, 유소연, 쭈타누간 순으로 1, 2, 3위가 유지될 전망이다. 재미교포 다니얼 강이 10언더파 274타로 4위, 김세영은 9언더파 275타로 공동 5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 '미국 피로감' 장하나 국내 복귀

LPGA 투어 카드 반납...내달부터 KLPGA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활동하던 장하나(25)가 국내 무대로 전격 복귀한다. 장하나의 매니지먼트사 스포티즌은 장하나가 LPGA투어 카드를 반납하고 K(LPGA)투어에서 뛰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LPGA투어에 진출한 장 하나는 3년 동안 통산 4승을 올렸고 세계랭킹 10위에 올라 있는 등 미국 무대에서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도 호주여자오픈 우승을 포함해 3차례 톱10에 입상해 상급랭킹 9위(35만9천달러)를 달리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번 장하나가 국내 복귀를 전격적으로 결심한 것은 미국 생활에 대한 피로감 때문으로 알려졌다. 장 하나는 지난달 국내 대회에 2주 연속 출전한 바 있다. LPGA투어 정상급 선수답지 않게 주최측 초청도 없었고 별

다른 대우도 요구하지 않았다. 대회 주최 측도 출전 신청 선수 명단에 장하나의 이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당시 장 하나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신 효도 여행을 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선수 생활은 너무 여유가 없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매주 대회에 출전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짬을 낼 수 있는 한국이 그립다"고 지인들에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국내 복귀를 시사했던 셈이다. 장 하나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LPGA 투어를 접고 국내로 복귀하는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장 하나는 오는 6월 2일 제주 롯데 스퀘어 골프장에서 열리는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에서 국내 복귀전을 치른다. 장타력과 특출 튀는 개성으로 인기를 끄는 장하나의 국내 복귀로 K(LPGA)투어는 흥행 호재를 만났다. /연합뉴스

## 김국영 신기록 달성 가속도...실업육상 100m 10초35

'한국 육상의 간판' 김국영(27·광주시청)이 신기록 달성을 위한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첫 출전한 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한 데 이어 두 번째 대회는 대회 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기록 경신에 대한 레이스가 빨라지고 있다. 김국영은 22일부터 3일간 충북 예천군 일대에서 열리는 제 21회 전국실업육상선수권대회 및 제 71회 전국대학대학육상대회 남자일반부 100m 결승에서 10초 35의 기록으로 맨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올해 열리는 런던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한 기준기록(10초12)과 자신이 세운 한국 기록(10초16)에 못 미치지만 지난 4일 열린 '제 46회 전국중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세운 기록(10초47) 보다 빨라지는 추세다. 김재용 광주시청 육상감독은 "남은 기간, 기록 경신을 목표로 기량을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울기자 dok2000@kwangju.co.kr

## 김종현 뒤편 월드컵 소총복사 대역전 金

0.6점 뒤진 마지막발 10.7점 명중...0.1점차 우승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광주체고 출신 김종현(32·KT)이 국제사격연맹(ISSF) 뒤편 월드컵 사격대회에서 한국에 두 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김종현은 21일(현지시간) 독일 뒤편 올림픽사격장에서 열린 2017 뒤편 월드컵 사격대회 남자 50m 소총 복사 결선에서 248.3점을 쏘 노르웨이 보가르 스티안(248.2점)을 0.1점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대한사격연맹에 따르면, 이날 결선 대결은 초점전 양상이었다. 경기 중반까지 근소하게 앞서던 김종현은 20발째에서 스티안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김종현에게 0.6점 앞선 스티안이 마지막 24번째 격발에서 10.0점을 쏘 금메달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김종현이 최종 격발에서 10.7점을 명중해 대역전 드라마를 쓰고 시상대 꼭대기에 섰다.



김종현은 ISSF 주관 월드컵 대회에서의 첫 입상을 금메달로 장식해 두 배의 기쁨을 맛봤다. 김종현은 2012년 런던올림픽 소총 3자세, 2016년 리우올림픽 소총 복사에서 거꾸로 은메달을 따낸 한국 소총의 간판이다. 전날 주 종목 50m 권총에서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한 진종오(38·KT)를 포함해 한국은 금메달 2개로 이번 대회 중간 순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